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0. 22.(화) 11:00 < 10.23.(수) 조간 > 배포 2024. 10. 22.(화)

# 수출, 견조한 플러스 흐름 속 리스크 점검

- 1~9월 수출 5,087억불 기록, 반도체 수출은 '23년 전체실적 상회
- 1차관, 10월 수출동향 점검회의 주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10.22.(화)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 반등 이후 지난 1년간 매월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5,087억불을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도 작년 6월 흑자로 전환된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9월 누적으로 '18년(+544억불) 이후 최대 규모인 +368억불 흑자를 달성하였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고부가가치 제품인 DDR5, HBM 중심으로 '24.1~9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1% 증가한 1,024억불을 기록하면서, 4분기를 앞둔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수출실적인 986억불을 추월하였다. 한편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24.1~9월 누적 기준 529억불로 작년(521억불)에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재경신하였다.

박성택 1차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올해 4분기 수출의 증가율은 앞선 1~3분기 대비 다소 둔화될 수 있겠지만,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차관은 "정부는 지난주부터 운영 중인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계기로 금년도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무역정책관<br>수출입과 | 책임자 | 과 장 | 이창훈 | (044-203-4040) |
|---|---|---|---|---|---|
| | | 담당자 | 사무관 | 여수항 | (044-203-404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